

# Internal Adverbs and Generative Lexicon

윤재학

(경희대학교)

jhyoon@nms.kyunghee.ac.kr

## 1. 머리말

이번 학술대회에서 본 발표자는 의미/기능적으로 유사한 한국어 부사 '다시'와 '또'의 차이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가지 주장을 펴고자 한다.

우선, 이들의 차이점을 현상적으로 자세히 기술하여 일반성을 포착하고자 한다. 이 차이들 중에서 의미적 차이는 이들이 주어진 특정 사건에 대해 각각 token-identical한 사건과 type-identical한 사건에 대한 수식을 제공하는 어휘적 특성이라고 파악한다.

둘째로, 기능적 차이로서 결과상태에 대한 수식으로서 '다시'만 가능하고 '또'는 불가능한 것을 Pustejovsky (1995)의 생성 어휘의미론의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려면, 현재의 event structure의 이론적 구조에 다소의 수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headed subevent structure의 방식을 수정하여, 모든 유형의 event에 있어서 결과상태가 head가 아니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process가 head라고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Pustejovsky의 subevent구조에 대해 부사수식과 관련한 오류를 지적한다.

## 2. '다시' vs. '또'

이 두 부사는 아래 (1)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의미적 차이가 없어 보인다. 어감 상의 차이점은 있을 지 모르나, 진리조건적 차이는 없다는 것이 화자들의 일반적 의견이다. 이들은 사건을 수식하는 부사로서, 문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이미 존재했다는 전제를 요구한다.

- (1) 가. 내일 다시 만남시다.  
나. 내일 또 만남시다.
- (2) 가. 길수는 다시 정미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다.  
나. 길수는 또 정미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다.

실제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래 (3)의 경우처럼 '또'와 '다시'가 동시에 나타나서 강조적 기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3)의 의미는 위의 (2)와 구분이 불명확하다.

- (3) 길수는 또 다시 정미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의미적 차이 혹은 기능적 차이를 보여 주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이 관찰된다. 아래 문장 (4)와 (5)를 주목하자:

- (4) 가. 연구계획서 다시 복사해 오세요.  
나. 연구계획서 또 복사해 오세요.
- (5) 가. 이 기안서 다시 써와.  
나. 이 기안서 또 써와.

(4가), (5가) 문장에서는 '다시'가 수정적(corrective)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새로운 복사와 기안서 작성의 행위가 기존의 복사물과 기안서를 대체하게 된다. 반면, (4나), (5나)의 문장에 나타나는 '또'는 추가적인(additive)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겠다. 예컨대, 지원서류에 연구계획서 2부가 필요한 경우였는데 한 부만 제출했을 경우 (4나)가 적절한 문장이 되겠다. 이에 반해, (4가)는 이미 복사한 연구계획서의 복사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발화가능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이 다음 문장 (6), (7)의 대조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표시로 나타낸 바와 같이, '다시'는 '배고파다', '밥을 먹다'와 같이 서술어의 성격상 수정적의미를 도출하기가 어려운, 순한 반복적/추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환경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 (6) 가. #너 다시 배고파?  
나. 너 또 배고파?
- (7) 가. #밥 다시 먹을래?  
나. 밥 또 먹을래?

일핏 위와 유사한 아래 문장 (8)은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하면, (8가)는 단순한 추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8가)는, 그리고 (8가)만, 음주에 불만스러움의 표출로서 이번에는 '제대로/똑바로' 한잔 하자는 수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 (8) 가. 다시 한잔 하자.  
나. 또 한잔 하자.

술은 한자리에서 여러 잔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전 순배에 대한 수정적 순배가 가능한 점이 위의 (7가)의 '밥을 먹다'와 대조된다: 식사 한끼를 불만스럽게 했다고 수정적으로 다시 먹는 행위는 화용적으로 부자연스럽다. 참고로, 밥이 식사의 의미가 아니고, 특칭적(specific) 사물을 가리키는 경우 수정적 의미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밥을 먹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나머지를 먹는 행위로서 (7가)는 가능하다. 아래 문장 (9)도 이런 중단된 행위의 재개로서 먹다 남긴 음식을 계속하여 먹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 (9) 아침에 다시 피자 먹을래?

이와 같은 의미적 차이는 사건 의미론의 맥락에서 어떤 이론적 구분을 할 수 있을까? '다시'가 수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또'에 비해 해당 사건 간에 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전제하는 것이다. 중단된 사건의 계속으로 파악되는 경우도 있어 일단 잠정적으로 이 둘의 구분은 영어 구문 'the same X that ...'과 'the same X as ...'의 대조가 보여 주는 token-identical과 type-identical의 대조로 파악하도록 하자.

부사 '다시'와 '또'의 두 번째 차이점으로서 결과상태에 대한 수식의 가능여부로서 기능적 차이점이다. 전자는 결과상태에 대한 수식이 가능한 반면, 후자는 불가능하다. 아래 문장 (10)은 이를 예시하고 있다.

- (10) 가. 린다김은 다시 뉴욕에 갔다.  
나. 린다김은 또 뉴욕에 갔다.

위 문장 (10나)는 단순한 한 가지 의미 밖에 없다: 린다김이 전에 적어도 한 번 뉴욕에 간 적이 있었고, 상황에 의해 주어진 특정 시점에 뉴욕에 가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반면, (10가)는 물론 (10나)의 의미도 있지만 이에 덧붙여서 결과상태에 대한 수식적 의미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린다킴에 평생동안 뉴욕에서만 살다가, 최근 일주일간 한국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경우에 적합한 의미가 (10가) 문장에는 가능하다. 이런 경우, (10나)는 진리조건적으로 거짓이지만, (10가)는 참이라는게 대부분의 한국어 화자들의 의견이다. 이 경우, 반복되는 것은 돌아가는 동작이 아니라, 돌아가는 동작에 의해 발생하는 뉴욕에 있게 되는 결과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상대되는 영어 문장으로는 아래 (11)을 들 수 있겠다.<sup>1)</sup>

- (11) 가. Linda Kim went back to New York.  
 나. Linda Kim went to New York one more time.

이런 차이는 점증적 변화와 관련되는 아래 문장 (12), (13), (14)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는 현상이다. 즉, 아래 (가) 문장들은 원상회복적 의미를 담고 있어서 과거에 올라 갔다가 최근 원래 상태로 환원되었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 (나) 문장들은 최근 계속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12) 가. 물가가 다시 떨어졌다.  
 나. 물가가 또 떨어졌다.  
 (13) 가. 기온이 다시 떨어졌다.  
 나. 기온이 또 떨어졌다.  
 (14) 가. 주식이 다시 떨어졌다.  
 나. 주식이 또 떨어졌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시’와 ‘또’의 이런 기능적 차이가 단순히 후자는 상태 수식이 불가능하다는 자의적인 규정으로 설명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아래 문장 (15)에 의해서 예증된다. 이 문장이 보여주는 바는 부사 ‘또’는 상태수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파악한 것은 단지 위에서 보여준 바 대로 결과상태 수식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15) 가. 너 또 아프니?  
 나. 그사람 또 술집에 있어?  
 다. 그는 또 집에 있었다.

이럼으로써 우리는 결과상태가 일반적 상태와는 구분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론적인 구조에 감안을 해야 하겠다. 결과상태 수식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다음 절에서 계속된다.

본 절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 관찰로 요약된다. 첫째로, ‘다시’는 token-identical한 사건을 전제하고, ‘또’는 type-identical한 사건을 전제한다. 둘째, ‘다시’는 결과상태를 수식할 수 있지만, ‘또’는 이를 수식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두가지 관찰된 특성은 결과상태를 수식하는 ‘다시’가 원상(태)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어느 정도 논리적 연결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 3. Internal Adverbs

#### 3.1 Internal Reading

본절과 다음 절에서는 앞절에서 포착된 ‘다시’와 ‘또’의 차이점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모색하기로 한다. 결과상태를 수식하는 ‘다시’류의 부사에 대한 언급은 역사가 비교적 오래되었다. Robert Binnick의 예문이라고 하는 (16)을 보자 (cf. Morgan 1969).

1 물론 (10가)와 (11가)가 정확히 일대 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10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는 (11나)에 해당하고, 남은 하나가 (11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입장을 달리하여, (10가)는 (11가)와 대응되며, 이는 (11나)의 경우를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11나)는 (11가)를 함유하기 때문이다.

(16) The Sheriff of Nottingham jailed Robin Hood for four years.

이 문장의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The Sheriff of Nottingham이 Robin Hood을 감옥에 넣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가 4년 동안 그곳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문장의 동사 'jail'은 일반적으로 'for four years'와 같은 시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는 telic 동사인데 이와 함께 쓰였고, 이 시간부사가 수식하는 것은 이 동사가 의미적으로 함유하는 내부의 결과상태라는 뜻에서 Dowty (1979)에서 internal adverb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jail'이라는 동사의 의미적 특성상 구급기간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일부에서는 이 시간부사를 이 동사의 논항으로 주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더욱 단순한 경우를 따져 보기로 하자.

McCawley (1971), Morgan (1969), Dowty (1979) 등은 다음 문장 (17)도 이와 유사한 internal reading이 있음을 관찰하고 있다. 이 문장은 (18)에서 풀어 쓰듯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17) John closed the door again.

(18) 가. external reading: '(John has performed the action of closing the door at least once before and) again he closed it.'

나. internal reading: 'John has brought it about that the door is again in a closed state (, though he need not have closed it on any earlier occasion.)'

본 발표자도 (Yoon 1996 참조) 같은 맥락에서 한국어 '입다', '벗다', '타다'류의 동사를 결과상태동사로 분류하고, 아래 문장 (19)에서의 시간부사는 동사의 동작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상태를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즉, 아래 문장은 모자를 쓴 동작이 오전에 일어난 경우에도 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있'을 단순 과거로 간주하더라도, 모자를 쓴 동작의 결과 발생한 모자를 착용한 상태에 대한 시간적 서술로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19) 가. 영희가 오늘 오후에는 빨간 모자를 썼다.

### 3.2 On Internalness of Reading

위에서 언급한 문장들이 실제로 internal reading이 있다는 주장에 반론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된다. 우선, Michael Bennett과 Moens and Steedman (1988)의 경우처럼 internal adverb는 실제로 결과상태에 대한 단순한 수식이라기 보다 동작주의 의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주절의 한 요소로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에 internal reading이라고 간주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이는 아래 문장 (20), (21) 등이 충분한 반례로서 작용한다고 보고 무시한다: 다시 말하면, 아래 명시된 기간은 호수와 기온, 혹은 이들을 움직이는 실체의 의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20) The lake froze for two months.

(21) The temperature rose to about 75 degrees for a few hours, then it gradually fell to 62.

두 번째 반론은 Chierchia and McConnell-Ginet (1990)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우선 위의 문장 (17)이 internal reading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 화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 따르면 'close the door'와 '유사한' 어휘 'clean the jacket'의 예를 들어 반박한다. 아래 문장 (22)에서 internal reading이 위의 경우와 달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internal reading은 허구라는 것이다.

(22) John cleaned the jacket again.

위의 문장 (22)에 internal reading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internal reading 자체가 허구라는 것은 (22)와 같은 문장이 지지하는 것 이상의 주장이다. 세 가지 점에서 반박할 수 있다. 첫째, 문장 (17)이 비록 일부의 불일치가 있다고는 하나 대다수의 화자가 internal reading을 갖는다는 직관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둘째, 'again'이외의 위에서 언급한 시간부사의 경우 훨씬 더 명확하게 internal reading을 가지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lose the door'와 'clean the jacket'이 유사한 어휘라는 전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Chierchia and McConnell-Ginet가 이 둘을 비교하며, 이들이 대응되고 유사하다고 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들은 lexical decomposition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반박이 목적이었으며, 이 두 어휘는 causative와 unaccusative로 동시에 같은 형태가 쓰이기 때문에 비교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러나 동사에는 많은 의미적 하위범주가 있음을 또한 인정해야 한다. internal reading이 가능한 동사들의 특징 중 하나는 완벽하게 이전 상태로 전환되는 것이 비교적 쉬워야 한다. 이 점에서 주어진 두 구절은 약간의 대조를 보인다. 문을 열고 닫으면 간단히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지만, 재킷을 세탁한다고 해서 이전의 깨끗한 상태로 완벽하게 전환되지 않는다. 이것은 아래 (23)의 문장들에서 언어적으로 반영된다.

- (23) 가 The door was back to the closed state.  
나 The door was back to the open state  
다 #???The jacket was back to the clean state.  
라. #???The jacket was back to the dirty state.

또한, 'clean the jacket'은 'close the door'와 달리 accomplishment와 activity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 (24나)의 시간부사는 (24가)와 달리 결과보다는 과정을 수식한다

- (24) 가. They closed the door for an hour.  
나 They cleaned the jacket for an hour.

간단한 상태전환가능성과 internal reading의 존재여부가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는 것은 아래 문장들에서도 관찰된다. 이는 다시 강조하지만, internal reading은 모든 동사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동사의 한 하위범주로 제한된다는 것이며, 'close/open the door'는 이 범주의 원소이나 'clean the jacket'은 원소가 아니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한국어에 있어서 이러한 하위 범주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Yoon (1996)의 Chapter 4를 참조하기 바란다.

- (24) 가. John went to New York again.  
나. John was back in New York.

따라서, 일견 유사해 보이는 동사에 internal reading이 없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 4. Generative Lexicon

### 4.1 Headed Subevent Structure

Pustejovsky (1988, 1995)는 Dowty (1979)가 언급한 internal reading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간다. Generative Lexicon의 어휘의미론이 internal adverb와 관련된 부분은 event의 내부구조에 집중된다. 일반적인 event는 process와 이에 결부

되는 transition라는 두 개의 subevent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 두 subevent는 주로 상적 속성에 따라 complete precedence (<), complete overlap (○), partial overlap (<○)의 세가지 중의 하나의 시간적 순서가 정해진다. State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에 대해서는 subevent 구조를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짐작된다. Subevent들 사이의 시간적 순서에 덧붙여서 상대적 현저성에 근거해 \*로 표시되는 head의 개념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각 aktionsart를 대표하는 동사들에 대응하는 event structure는 아래에 같이 제시된다.

- |      |           |                  |   |               |
|------|-----------|------------------|---|---------------|
| (25) | 가 build   | (accomplishment) | : | [e e1* < e2]  |
|      | 나. arrive | (achievement)    | : | [e e1 < e2*]  |
|      | 다. walk   | (activity)       | : | [e e1* <○ e2] |

Accomplishment와 activity를 process인 좌측 subevent가 head이고, achievement의 경우는 결과상태인 우측 subevent가 head인 것은 부사어 수식의 경향에 상당부분 근거한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의 예들이 제시된다 (참고: Pustejovsky 1995:73-75).

- (26) 가. John ran home for an hour.  
 나. My terminal died for two days.  
 다. Mary left town for two weeks.
- (27) 가. John built the house carelessly.  
 나. Mary quietly drew a picture.

위 (26)의 문장들은 모두 achievement를 지칭하는데 해당 시간부사들은 이들의 결과상태를 서술하는 것이다. 반면, accomplishment를 지칭하는 (27)의 문장에서 부사들은 transition을 가져오는 process를 수식한다. 다시 말해, 이들 부사들은 head를 수식한다.

#### 4.2 '다시'와 '또'의 설명

위의 3절에서 고찰한 이 두 부사어의 중요한 기능적 차이점은 '다시'는 결과상태 수식이 가능한 반면, '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 차이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다시'는 process와 state에 중립적인 반면, '또'는 process-oriented된 부사라고 간단히 치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위에서 지적했듯이 아래에 반복된 (15)의 문장들은 '또'가 결과상태가 아닌 일반적 상태에 대한 수식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 (15) 가. 너 또 아프니?  
 나. 그사람 또 술집에 있어?  
 다. 그는 또 집에 있었다.

만약에 (15)의 문장들이 '또'의 일반성을 예시하는 경우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반적 상태와 결과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추가적으로, '다시'와 '또'의 하위범주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headed structure 전반에 대한 재고를 통해서 모든 subevent 관계에서 좌측 event를, 즉 process, head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사 하위분류에서 '다시'와 '또'의 차이는 non-head state의 수식가능 여부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상태가 아닌 (15)의 문장들은 단독 상태가 자체의 head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므로, 이런 차이에 대한 설명을 얻을 수 있다.

Headed structure에 대한 전반적 재고가 생각만큼 억지 주장이 아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process와 결과상태로 이루어진 superevent의 구조에서 시간부사의 수식관계만 제외하

면, 의미적으로 process가 주술부이고, 결과상태는 여기에서 함의관계에 의해 파생된 부차적 서술부이다. 둘째로, 아래 4.3에서 언급되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부사가 위에서 제안한 headed structure에 입각해 수식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양태부사들은 항상 좌측 subevent만을 수식한다.

#### 4.3 Headed Subevent 구조의 문제점

끝으로, Pustejovsky의 (1988, 1995) internal adverb와 결과상태에 대한 의미포착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경험적 사실로서, 부사어가 headed subevent만을 수식한다고 하는 것은 오류이다. 위의 (27)의 예문은 'carelessly'와 'quietly'가 accomplishment의 head인 process를 수식하는 증거로서 제시되었으나, 사실은 이 부사들은 아래 (28)에서 예증하듯이 achievement의 'non-head'인 process를 수식할 수 있다. 반면에 이들은 이 achievement의 head인 결과상태는 수식이 불가능하다: (28나)는 터미널이 down이 되어 조용해졌다는 의미는 없으며, (28다)문장에서 예를 들어 수다장이 Mary가 떠나 동네가 조용해졌다는 의미는 없다.

- (28) 가 John ran home carelessly.  
 나. My terminal died quietly.  
 다. Mary left town quietly.

물론, 시간부사는 제안된 headed structure에 따르는 수식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이는 이들의 분류가 시간구조와 관련된 속성에 기초함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측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간부사 외의 부사, 적어도 'carelessly', 'quietly'와 같은 양태부사는 headness와 상관없고 다른 방식에 의해 규칙성을 포착해야 한다. 예컨대 이 경우에는 양태부사는 모두 process-oriented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일반화할 수 있겠다.

두 번째 반론은 subevent 구조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에 대한 것이다. Generative Lexicon의 프로그램에 따르면 state을 제외한 모든 eventuality는 process와 결과상태라는 subevent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부사어가 세가지 단위, 즉 전체 (super)event, process, 혹은 결과상태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74 쪽). 그러나, 부사어는 물론 대명사를 포함한 어느 언어단위도 superevent를 직접 수식하거나, 지칭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close the door'의 경우, 문을 닫는 동작과 이 동작의 결과로 얻어진 상태를 통합하여 시간적으로 나타내거나, 이 통합된 사건에 대해 대명사로 지칭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두개의 subevent에 의해 하나의 event를 이룬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고려할 때 이는 예상되지 않는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두 개의 subevent에 의해 하나의 event가 이루어져 있고, 부사어는 이를 직접 수식한다는 것은 데이터에 의해 경험적으로 지지되지 않은 언어적 실체가 없는 이론적 구조물일 뿐이다. 따라서, 현상에 대한 설명력이 동일하다면 이를 도입하지 않는 이론이 비교우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 5. 맺음말

이상에서 '다시'와 '또'의 차이점을 고찰하여, 이들의 의미적 차이점은 원상회복적인 의미와 추가적인 의미로 구분되며, 나아가서 token-identical과 type-identical의 차이라는 잠정적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Generative Lexicon의 틀에서 이 부사들의 internal adverb로서의 기능적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headed subevent structure에 일부 수정을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모든 subevent 구조에서 process를 head로 간주하고, '다시'와 '또'의 기능적 차이는 결국 전자는 non-head subevent 수식이 가능한 반면, 후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Chierchia, Gennaro and Sally McConnell-Ginet. 1990. *Meaning and Grammar: An Introduction to Semantics*. MIT Press.
- Dowty, David.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Kluwer Publishers.
- McCawley, James. 1971. Pre-Lexical Syntax. in O'Brien (ed.) *Report of the 22nd Roundtable Meeting on Linguistics and Language Studie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Moens, Marc and Mark Steedman. 1988. Temporal Ontology and Temporal Reference. *Computational Linguistics*. 14.2 15-28.
- Morgan, Jerry. 1969. On Arguing About Semantics, *Papers in Linguistics* 1. 49-70.
- Pustejovsky, James. 1988. The Geometry of Events. In *Studies in Generative Approaches to Aspect: Lexicon Project Working Papers* no. 24, ed. by Carol Tenny, 19-39. MIT Press.
- Pustejovsky, James. 1995. *The Generative Lexicon*. MIT Press.
- Yoon, Jae-Hak. 1996. *Temporal Adverbials and Aktionsarten in Korean*. Ph.D.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